

특별기획

군산서 교통안전시설 개선 민원접수

군산경찰서는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제3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민원 접수 20일까지 받는다.

신고내용은 신호등 운영·설치 제한속도, 중앙선 절선 횡단보도 설치 등 불편한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해 교통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이 해당된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불편신고는 전화(063-441-0811)와 군산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고 있으며, 접수된 불편사항은 신고자와 현장에서 타당성을 검토 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산정하여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 팜조아 식품퍼미 기탁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아들이 있어 지역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익산시 목천동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주)팜조아는 지난 9월 1일 추석 명절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식품퍼미 40개를 평화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기탁한 식품퍼미(시가 3만원 상당)는 쌀4kg, 잡곡종이, 발아현미, 전연(색미) 1200g, 햇사과 7개로 구성돼 있다. (주)팜조아 대표이사 황은경은 "앞으로 더 합리하게 생활하는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으로 함께하는 이웃이 되어주겠다"고 했다.

박양규 평화동장은 "팜조아에 동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사를 드린다"며 "지역에 보여준 따뜻한 사랑의 기부 문화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 입피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공자를 비롯한 선성선현(先聖先賢)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인 추기 석전대제가 지난 2일 군산 입피향교 대성전에서 지역주민과 관련연립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석전대제는 매년 봄(음력 2월 초정일), 가을(음력 8월 초정일) 두 번에 걸쳐 봉행해 오고 있다.

군산 입피향교는 조선 태종 3년(1403) 흑산도에 처음 지었고, 숙종 38년(1710)에 지금 있는 자리로 옮겨 세웠다.

대성전의 규모는 앞면 3칸, 옆면 2칸으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안(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이며 안쪽에는 공자를 비롯한 그 제자와 우리나라 선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전종신 입피향교장은 "석전대제를 통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효사상과 가정·생활예절 등 우리문화의 전통 윤리관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사색하는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향교의 모임을 확신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추석 쓰레기 특별관리대책

군산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추석 연휴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시민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특별정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정수기간에는 주민지원협의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내 곳곳에 쌓여있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공무원 유관기관,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해 주택 뒷골목, 공한지, 놀이터 주변 등 상습 투기 지역의 적체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수거·처리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기자

프룻팅 인도네시아-케미드 국가식품클러스터 MOU체결

한국 식품시장 진출 원활한 생산 환경 조성... 내년 상반기 착공

인도네시아 기업 PT.Fruit-ING Indonesia(프룻팅 인도네시아)와 국내(주)케미드가 지난 2일 서울 아카데미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식품대전 내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관에서 농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에 관한 투자 이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최호중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김동규 전라북도 과장, 고성봉 익산시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최희중 국가식품클러스터 센터장, Iwan Winardi 프룻팅 인도네시아 대표, 문재석 케미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동 자바 주에 소재한 PT.Fruit-ING Indonesia(프룻팅 인도네시아)는 망고, 구아바, 오렌지 등 열대과육 및 과실음료 등을 제조하는 식음료 전문기업이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 OEM방식으로 수출하며 유니레버, 아사히 등 세계 유명 다국적 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거래하고 있다.

한국 식품시장 진출과 원활한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결정한 PT.Fruit-ING Indonesia(프룻팅 인도네시아)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향후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을 통해 고구마, 스탁, 라떼, 과실음료, 기능성 음료를 생산하여 수출할 계획이다.

1998년에 설립된 (주)케미드는 친환경을 지향하는 식품첨가물 전문기업으로 식품 제조공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네오화이트, 네오크린마론, 소포제 등의 혼합제제와 환경 오염원을 제거하는 수처리제, 탈취제, 질소산화물(대기오염 배가스) 제거용 약품 등

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케미드는 건강 위주로 변화되는 식생활 풍조에 따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개발·생산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결정했다. 지난 8월 11에 분양인정을 하고 9월 중 분양계약 체결 후, 내년 말 제2공장 설립을 위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성봉 익산시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체결을 결정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기업이 성장하는데 최선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최근 수출에 유리한 입지와 기업지원 환경을 찾는 국내의 식품기업들의 입주문제가 잇따르고 있어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왕원기자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발목잡기 중단 하라"

민노총 화학섬유연맹 "생존권 지키기 위해 강력 투쟁" 군산시의회에 촉구

군산 페이퍼코리아와 계열사 노동조합 등 500여명은 "군산시의회는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사업에 대한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총 화학섬유연맹 페이퍼코리아지회(지회장 김민섭)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군산시의원들이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사업과 관련 부지개발을 놓고 개발이익이 없다면서도 이익금의 1/3을 가져야 된다는 발언으로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사업을 지연시키려는 일부 의원들의 이같은 작태에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페이퍼코리아 근로자들은 생존권과 직결된 공장이전을 놓고 4년여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노심조사를 왔으나, 일부 의원들의 패능은 발목잡기는 페이퍼코리아 500여 근로자와 200여 가족들의 생존권은 물론 2200여 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의 재산권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페이퍼코리아는 군산에 몇 안 되는 토종기업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 또한 사실이나, 500여 명의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공장이전이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의 논리 때문에 이전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쳐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경영악화가

다한다면 페이퍼코리아 노동자들의 생존은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타 지자체들은 기업유치를 위해 온갖 지원을 다하고 있는 판국에, 있는 기업마저도 부도위기에 내모는 군산시의회의 이 같은 몰지각한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일부 시의원들의 똘이가 계속된다면 페이퍼코리아 노동조합은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군산시의회의 현명한 선택으로 지역경제가 파국을 맞는 일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이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똘이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대, 12일부터 201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정원내 1059명 · 정원외 162명 등 총 1221명 모집

군산대학교가 오늘부터 21일까지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수시 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학생은 총 1221명(정원내 1059명, 정원외 162명)으로 전체모집인원의 64.4%이다.

전형별 선발인원은 새만금전체 247명, 다문화가정 6명, 국가보훈대상자 8명, 일반전형 647명, 지역고교출신자 99명, 특기자전형 52명, 농어촌학생 52명, 특성화고출신자 26명, 기회균형 선발 17명, 특수교육대상자 3명, 선취입준비전형 64명이다.

올해 수시모집의 가장 큰 변화는 새만금전체 전형의 지원 자격 변경이다. 지난해 새만금전체 전형의 지원 자격은 일반고출신 졸업예정자(졸업자 제외)였으나, 학교구분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고자 2017학년도 선발부터는

내신출신이 가능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제외)로 변경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고사도 인성 중심평가로 전환했다. 그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실시되었던 면접고사에서 인성, 학문적 역량,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했다.

학문적 역량의 경우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였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여전히 부담 유발요소라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해당부분을 평가영역에서 제외하고 인성중심 평가로 면접의 방향을 전환하는 등 간소화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정원내)을 신설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 기회도 확대했다. 작년도부터 적용되어 온 수능최저능력기준 전면폐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서 중앙지구대, 추석 치안확보 위한 특별방범활동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중앙지구대(대장 김응대)는 추석명절을 맞아 강도도 등 각종 범죄가 우려됨에 따라 역동적인 치안활동으로 범죄발생을 억제하여 안전한 생활차안 확보로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한다.

중앙지구대는 추석전 9월5일부터 10일까지 1단계 특별방범활동으로 금융기관과 편의점, 금은방 등 현금유출이 취약하는 업소를 점검해 강도도 등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현금 날치기 등 오토바이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검문검색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치안수

요가 많은 모현동 아파트·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자율방범대와 협력, 서민보호구역 인 문화촌 일대와 외국인 치안강화구역 인 익산역 부근 및 여성범죄우려지역 인 원외고 주변, 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 합동순찰을 실시하여 범행의지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금은방 등 현금유출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간담회 및 방범진단을 실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범죄피해 발생시 대처요령 홍보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9월 11일부터 18일까지는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를 최대동원 인력을 집중 투입해 금융기관 등 현금대체취급업소 및 관내 범죄취약지인 남중동 문화촌 일대와 원외고 주변 등에 배치하여 범죄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음주단속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중앙지구대장 경관 김응대는 "이번 특별방범활동은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차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안전한 치안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고향으로 떠날 때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문 앞에 신문이나 유류 등 배달 물품이 쌓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익산=장왕원기자



대학알리미 사이트 취업률 분석

원광대, 취업률 상위권 대학 포함

원광대학교가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 공식된 4년제 188개 대학(산업·교육 대 제외)의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취업률 중 공학계열(건축학과 취업률 83.9%)과 자연과학계열(약학과 95.2%)에서 전국 30위권 안에 들어 개별별 취업률 상위권 대학에 포함됐다.

대학 알리미는 교육부에서 대학 정보를 공식하는 사이트로 이번 조사된 결과는 2016년 2월 졸업생과 2015년 8월 졸업생 중 프리랜서, 1인 창업자, 개인창업활동 중 사업자는 포함하지 않고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정보 공식 분석 결과 원광대는 공학계열의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부(64.5%)와 건축공학과(63.6%)가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과학계열의 반도체시스템공학부(64.3%), 가정의학과대학 전공(64.9%), 인문사회계열의 유아교육과(76.3%), 의학계열인

치의학과(92.5%), 의학과(90.1%), 한의학과(86.4%) 등도 강세를 보였다.

한편, 원광대는 학과마다 취업률 전담하는 진로기획교수와 신입 직원으로 구성된 W-CA(원광 진로기획교수 연수와 W-CA 연수, 상담사), 전문 취업 컨설턴트를 두어 학생들이 저학년부터 진로를 설정하고 취업 준비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방학에는 진로 및 취업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기획교수 연수와 W-CA 연수,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 위탁기관 워크숍 등을 실시했으며, W-CA는 전일 NCS 취업역량 강화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대학창업조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된 원광대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연간 5억씩 총 25억 원을 지원받아 진로 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보건진료소 활성화 간담회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2일 오후 보건소 2층 교육실에서 의료취약지에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직원 24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건료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진료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간담회는 건강증진사업 등 업무추진 실적 보고와 보건진료소 활성화 방안과 건의사항 등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

행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정현을 시장은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지역의 특성상 대부분 연로하시고 소외된 어려운 분들이 많은 만큼, 단순히 진료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까지 위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지역주민의 건강유구에 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김천서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호응'

군산시가 지난 2일 자매도시인 김천시 방문해 '군산시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어 김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09년부터 8년째 열리는 직거래장터는 일회성 자매결연 행사까 아닌 지속적인 협력 가능한 동반자 관계를 위한 양 도시의 주요행사로 자리잡았다.

직거래장터에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해 군산시의회, 농민단체, 농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양 자매도시 간 우호증진과 신뢰를 쌓는 자리가 되어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증진이 기대

되고 있다. 이번 직거래장터를 통해 군산시는 우수 농수특산물인 환삼덩굴, 배를 비롯해 잣가루, 장류, 조미김, 박대 등 23개 업체에서 36종의 제품을 판매해 사전주문량 포함 총 3353건, 5천3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며 물량이 조기 매진되는 등 김천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김천의 한 시민은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군산시 농수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행사에 함께 참여해 양 자매도시 간 우호증진과 신뢰를 쌓는 자리가 되어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증진이 기대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직원 교육

군산시는 지난 2일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하가 담당부서 직원, 전부서 주무계장, 회계·사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 시행에 따른 행동요령과 수당 및 업무추진비 집행 시 회계처리 유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교육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워킹메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숙지와 이해를 도모했다. 한병환 감사담당관은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제정된 법

인만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워킹메뉴를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 청탁금지법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추진계획을 총괄하고 상담실 설치운영 등 김영란법 시행시 혼란방지와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날 28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법률의 주요내용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법률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법 시행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군산=문정근기자